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서정주

섬섬하게,

그러나

아주 섬섬치는 말고

좀 섬섬한 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옛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한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음독

20160042 구인용

“서정주의 시를 처음으로 읽었다. 시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의 이름은 익숙하다. 현역 시인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인으로도 꼽히고¹, 문학의 프락 동방엔 서정주의 시집이 책장 한 칸을 독차지하고 있다. 현대 시사(詩史)에 서정주는 큰 획을 그었고, 분명 한국시 다시 읽기 수업에서 한번쯤은 다루어 보아야 할 시인임에는 분명하다.”

-사실 글을 읽으며 시와 시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에, 글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매우 난감했다. 고심 끝에 윗 문단을 공통 서두로 두고, 글을 두 편으로 분리하고자 한다.

(시편)

시집 <국화 옆에서>를 읽었다. 서정주가 직접 출간한 시집은 아니고, 이남호 시인이 선별하여 엮은 책으로, 뒤에 해설도 간략하게 붙어있다. 사실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시집의 “벽1”과 “벽2” 발표나, “5분 27초” 시에 대한 수업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시집의 수록된 순서도 중요한 연출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시선집은 지양하고자 하였으나, 세 권에 걸친 <미당 서정주 전집>은 도저히 일주일 안에 완독할 자신이 없었다. 그 방대한 시 세계를 선배 독자의 도움을 받아 정수(精髓)만을 맛본다는 의미로 타협한 점에 양해 부탁드린다.

몇 차례 시집을 펴보며 나도 그토록 극찬 받는 서정주의 시를 향유하고자 하였으나 마땅히 와닿는 글은 찾지 못했다. 아, “시론”(<떠돌이의 시>, 1976)이 꽤 재미있었다. ‘시의전복도 제일좋은건 거기두어라.’ 제주 해녀도 제일 좋은 전복은 ‘님 오시는 날’ 따다 주려고 남겨둔 것처럼 서정주도 제일 좋은 문장은 남겨 두었다 이 말인가, 제목부터 느껴지는 자신감에 웬지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무엇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같은 기억에 남는 문장도 있었지만, 딱히... 심오한 사유가 돋보인다거나, 공감가는 시상을 그려낸다가나. 개인적인 ‘좋은 시’의 기준을 몇 개 대입해 보았을 때, 그토록 훌륭한 글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사흘째 책을 읽던 중, 놀라운 체험을 했다. 정수리가 간질거리는, 문자 그대로 소름 돋는 경험이었다. 에세이에서 다룰 글을 선정하고, 친구에게 소개할 때의 일이었다. 시를 한 번 읊는데, 단어가 입에 감기는 느낌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입에서 말이 흐른다. 아니, 구른다. 아니, 스며 나온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단어에 운율이 배어 있어 입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음악이 되었다. 예를 들면 “행진곡(行進曲)”(<귀족도>, 1948)의 ‘모가지여 / 모가지여 / 모가지여 / 모가지여’. 어떤 논리를 통해 이 되뇌임을 4번이나 등장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말도 더하거나 빼고 싶지 않다. 대체 불가능한, 마치 꼭 여기에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확신을 준다.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 같다. ‘산 보네 산 보네 밤낮 산 보네’로 시작하는 “산사꽃”(<떠돌이의 시>)도 그렇다. 영미 시 수업에서 Sonnet을 읽으며 배운 foot과 meter의 개념을 이용하자면, trochaic tetrameter 형식을 따르며 만족스러운 리듬을 형성했다.

공명음이 많이 들어간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꽃’이라는 어휘는 자주 등장하지만, 그 외에는 보통 부드러운 소리가 저항없이 이어지는 시들이 많다. 마치 ‘사각형이 예쁘다’는 말보다는 ‘네모가 아름답다’가 더 쉬이, 감각적으로 읽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 같다. 또 언어에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 형용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본능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감탄했다. “국화 옆에서”(<서정주 시선>, 1955)의 세번째 연 ‘그림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 머언 먼 젊음의 뒤편길에서 / 인제는 돌아와 거울

¹ <시인세계> 2004년 가을호 기획기사 ‘시인들이 좋아하는 애송시’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를 보면, ‘젊음’, ‘거울’, ‘누님’ 등의 어휘 선택은 그리움과 아쉬움의 아련한 감정을 내재하여 읽을수록 사무치는 감정을 주는 것이었다. 서정주의 시는 꼭 음독(音讀)을 권한다. 절묘한 어휘 선택과, 운율이 가져다 주는 감동은 시를 즐기는 새로운 감각을 알게 해주었다.

선택한 시는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동천(冬天)>, 1968)였다. 사실, 꽤 소중한 사람이 소개해준 시여서 개인적으로 감회가 남다르다. 다시 만날 날을 가늠하기 어려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은 이 시와 같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문득 생각나면 안녕하기를 늘 바라게 되고, 가끔 전해지는 소식에도 흐뭇하고 가슴이 부푸는 사람들. 자주 보지 못하는 오래된 친구, 아끼는 후배가 그렇다. 오랜만에 연락해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기분 좋고 반가운 감정을 숨기느라 애를 많이 썼다. 혼자 들뜨는 것이 민망하고, 혹여나 당신이 부담스러울까 하는 이유에서였다. 또 나는 만남 이전에 헤어짐을 생각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서, 마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쉽고, 또 그림고. 다음 만남이 아득하게 느껴지면 괜히 서글퍼지는 것이다. 그 때 이 시를 주문처럼 외우기로 했다.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치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기약할 수 없는 다음을 기대하며 조금 덜 아쉬운 표정으로. 괜한 애뜻함으로 간절해지기 전에 여유 있는 모습으로,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그렇다고 그 반가움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잊게 아니 고 한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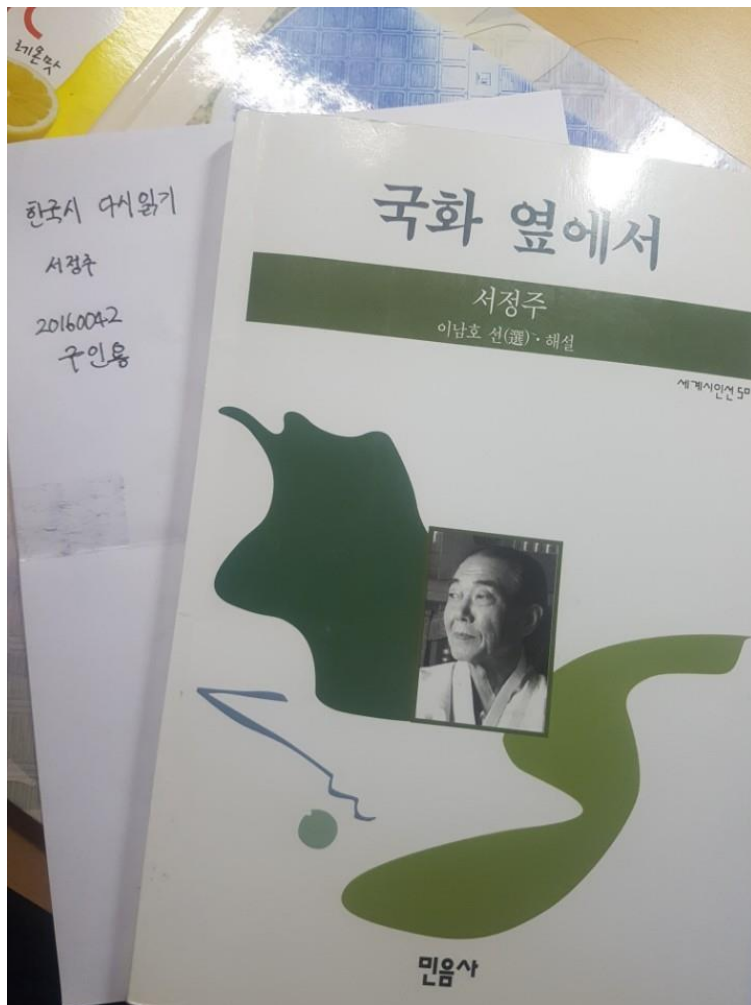
(시인편)

서정주. 분명 나 역시 그의 시에서 황홀함을 느꼈었지만,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의 삶에 있다. 미당 서정주. 그의 또 다른 이름, 다츠시로 시즈오. 첫 수업 시간에 서정주의 “마쓰이 오장송가”를 접했을 때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올해 미당 문학상의 후보를 송경동 시인이 거절했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 서정주의 반민족적인 행위를 처음 알게 되었지만, 직접 읽은 그의 글은 웬만한 친일파의 그것보다도 ‘수려하게’ 구차했다. 뭐, 서정주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고, 당시 문인들 중 상당수는 친일을 했다고 하니 그것은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박노해 시인 발표 이후 교수님께서 호칭하신 어휘를 따르면) ‘좌익 청년’인 나로서는, 해방 이후에도 박정희 군부, 전두환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친독재 행위마저 면죄부를 줄 수는 없었다.

<국화 옆에서>를 엮은 이남호 시인은 서정주를 ‘겨레를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수식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겨레의 언어에 대해 섬세한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음은 확실하나, 그는 겨레를 저버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 부끄러움을 노래한 윤동주나, 민중의 분노를 반영한 박노해와 비교하면 서정주의 장대한 시 세계도 개인의 그것에 그칠 뿐, 겨레나 시대를 대표할 만한 것은 되지 못했다. 송경동 시인 뿐만 아니라 고은 시인을 비롯한 많은 후배 문인들도 그를 존경하지는 않았다고.

윤동주가 언급되어 조금 더하는 내용인데, 서정주보다 두 살 동생이었던 그는 서정주의 <화사집>을 구해 벽찬 마음으로 필사(筆寫)했다고 한다. 한국의 서정시를 대표하는 두 문인의 상반된 삶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 모두 “자화상”이라는 시를 썼다.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아... 스물셋의 서정주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2000년 성탄절 전날, 죽기 전의 서정주는 과연 자신의 자화상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었을까. 조금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한편으론 안타까운 것이다. 그의 아름다운 시가 온전히 추대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시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권력을 쫓았던 그의 삶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다. 우리가 그의 시를 음독(音讀)하는 동안, 시인은 생에 거쳐 음독(飲毒)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잠시 생각해본다.



〈국화 옆에서〉 (지은이 서정주, 선(選)·해설자 이남호), 민음사

1 판 1쇄 펴냄 1997년 11월 25일

1 판 13쇄 펴냄 2010년 11월 25일